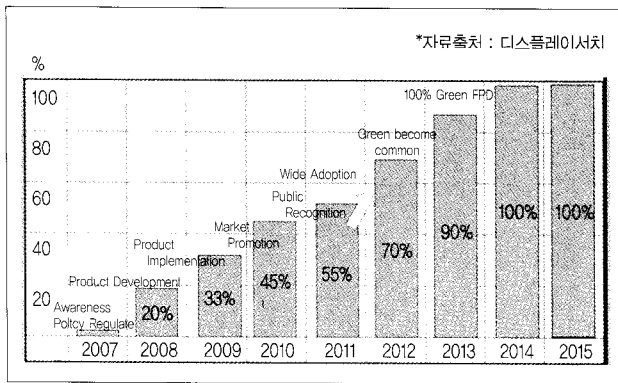


LCD패널 시장 연초 안정

〈2007~2015 Green 디스플레이 시장 전망〉



2009년 들어 LCD 패널 시장이 가격 하락이라는 긴 터널에서 벗어나고 있다. 모니터용 LCD 패널 가격은 사상 최대 호황을 누렸던 지난해 5월 이후 처음 올랐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져온 전 세계 패널 업체의 대규모 감산 효과에다 급격한 재고 조정의 영향인 것이다. 전자신문에 의하면, LCD 패널 시장의 본격적인 회복을 점치기는 이르지만 바닥권에 근접했다는 청신호로 여겨진다.

시장조사기관인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노트북PC·모니터·TV 등 대형 LCD 패널 평균 가격은 이달 초 들어 지난해 말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연중 최대 비수기인 1월에 대형 LCD 패널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기는 이례적이다. 19인치 와이드 모니터용 LCD 패널 평균 가

격은 전달보다 1달러 오른 60달러를 회복했다. 폭락세가 가장 컸던 모니터용 LCD 패널 가격이 7개월 만에 상승 반전한 것은 지난 연말 재료비 수준까지 떨어졌기 때문이다.

노트북PC·TV용 패널 가격도 지난해 하반기 내내 이어졌던 하락세를 멈췄다. 13.3·14.1·15.4인치 노트북PC용 LCD 패널 가격은 지난달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TV용 패널 가격도 32~46인치대에 이르기까지 역시 동일한 가격대로 고른 안정세를 보였다. 반면에 PDP 모듈 가격은 수요 침체에다 LCD 패널 가격 하락의 여파로 5% 안팎의 내림세를 기록했다. 휴대폰·DVD·넷북 등 중소형 LCD 패널 가격도 많게는 16% 이상 급락세를 이어갔다.

대형 LCD 패널 가격이 일시적이거나 안정세를 되찾은 것은 더 이상 떨어지려야 떨어질 수 없는 수준에 달했기 때문이다. 모니터용 패널을 필두로 노트북PC·TV용 LCD 패널 가격은 지난해 말 사실상 원가 이하로 내려갔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반년 이상 지속된 패널 업체들의 강도 높은 감산과 재고 조정의 영향이 서서히 가시화했다는 분석도 있다. 전 세계 LCD 패널 시장 1위인 삼성전자가 이번 가격 안정세를 주도했

다는 점이다. 삼성전자는 이달부터 델·HP 등 주요 고객사에 공급하는 모니터용 LCD 패널 가격을 소폭 인상했다. 삼성전자가 재고도 털어낸 상황에서 더 이상 원가 이하로는 팔지 않겠다는 뜻에서 가격 회복을 주도한 것이다. 공멸을 막기 위해 1위 업체가 나섰다는 점에서 향후 시장 전반에 확산될 긍정적인 가능성이 있다.

단기적으로 LCD 패널 가격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세계 LCD 패널 업체들의 가동률과 재고가 워낙 바닥 수준인데다, 지속적으로 가격 경쟁을 벌이면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대만 패널 업체와 중국의 군소 패널 업체는 가뜰이나 떨어진 가동률에 춘절 연휴를 앞두고 1월 한 달은 사실상 개점 휴업이나 다름없다. 수요가 갑자기 회복되더라도 공급 물량을 맞추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삼성전자의 가격 안정화 움직임에 나머지 패널 업체들이 동참하지 않을 경우가 변수다. 나머지 패널 업체들이 가격 안정에 가세하지 않으면 단기적으로 좋을지 몰라도 결국 같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계절적 수요가 살아나는 2분기 이후 전 세계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일지가 관건이다.

2008년 11월 대형 LCD 출하량이 전달에 비해 21% 줄어 2007년 5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TFT LCD 출하량은 총 2850만개로, 10월보다 21% 감소했다. 패널 제조업체들의 매출도 한달 전보다 24% 줄어든 38억달러로 나타났다. 평판TV용 패널 판매량은 1090만개로 2006년 6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또 같은 달 노트북PC용 패널의 판매량도 전월보다 25%나 추락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한국 기업들은 선전했다. 11월 한국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은 50.9%로 대만(34.3%)과 일본(10.5%)을 앞질렀다. LG디스플레이는 노트북용 패널 시장에서 33.3%로 선두를 지켰다. 삼성도 모니터(22.2%)와 TV(27.9%) 패널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TFT LCD 시장이 출하량과 매출이 급격히 줄면서 십년 내 가장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다. 이전, TV용 LCD 패널 가격이 지난해 12월에만 20%나 폭락했다. 특히 32인치 TV용 LCD 패널 가격은 덤핑 수준인 대당 150달러 대 밑으로 떨어졌고, 42인치 풀HD급 LCD 패널 가격은 HD급 PDP 모듈 가격과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LCD 패널 시장이 본격 비수기로 접어들면서 연말 공급 과잉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패널 업체들이 대대적인 재고 소진에 나선 영향인 것이다.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지난달 평균 205달러 수준이었던 32인치 TV용 LCD 패널 가격은 12월 20%정도 급락한 165달러로 추락했다. 불과 한 달도 안돼 평균 40달러나 빠진 것이다. TV 수요 부진에 따른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 일부 보급형 모델 가격은 150달러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다.

가격 폭락세는 40인치대 이상 대형 LCD 패널도 마찬가지다. 42인치 풀HD급 LCD 패널의 경우 지난달 평균 390달러였으나, 이달 들어 무려 15% 이상 떨어진 330달러를 형성했다. 이보다 해상도가 낮은 HD급 42인치 PDP 모듈 가격이 이달 평균 302달러 수준이라는 점에서 40인치대에도 LCD·PDP의 가격차는 거의 사라진 셈이다. 46인치 풀HD급 LCD 패널도 이달 들어 평균 가격이 500달러를 위협할 정도로 하락했다. LCD 패널 가격 폭락세는 모니터·노트북용 제품도 여전했다. 대부분의 기종에서 지난달보다 평균 10% 안팎 가격 하락세를 이어갔다.